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마가복음- 이사야 53:5-6, 마가복음 10:45

정윤돈 목사님

* **사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체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불가능 해보였던 영육 간의 모든 부인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응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갈등하며, 번민하고 힘들어한 부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절대적인 계획과 그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인약의 레임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평화와 치유의 왕, 그리고 마가의 배경

1. 대속의 제물로 오신 왕(사53:5-6) 성상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에, 어디를 가든지 ‘살롬’의 평화를 누릴 자격을 얻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죽음의 위협, 고난의 길, 전쟁의 위협, 가난 등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실체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2. 치유와 결혼 난 인생 또한 주님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한다.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질병, 압과 같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난다면 그 질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제목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작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천석꾼은 천 가지 근심, 만석꾼은 만 가지 근심”이라는 말처럼,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근심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부유함이나 가난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히 분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나 가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찾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천국에 모든 풍성한 이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사소한 성공이나 실패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실 수도 있다. 우리의 연봉이나 사업의 성과보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더 집중하신다.

3. 풍요와 세계복음화의 이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며 공부 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성경은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오해하여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애환동산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육과 같이 특별한 연단을 위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성실하게 섬기며, 남을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모든 일은 행동하게 된다.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한 발판이 된다.

1. 마가 요한의 실패와 거듭남

1) 마가 요한의 배경과 로마식 패권주의
(1) 마가리는 이름의 유래와 의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리는 이름은 로마식으로 '마르쿠스(Marcus)'라고 하며, 포르투갈어로는 '마르코', 스페인어로는 '마르코스'라고 부른다. 이는 로마의 '전쟁의 신인 마르스(Mars)'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이 이름에는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성향이 담겨 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더 큰 제국을 건설하고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로마식 정신, 곧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돈 중심, 성공중심의 가치관을 상징한다. 당시의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 청년 마가 역시 이러한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2) 부유한 배경과 엘리트의식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으며, 그의 집은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좁고 작은 공간이 아니라, '어퍼룸(Upper Room)'이라 불리는 넓은 연회장이나 강당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최소 500평 이상이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큰 저택이었으므로, 마가는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는 로마식 교육을 받아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엘리트였다. 자신의 집에서 어려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점차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성공해야 한다'는 세상적인 교만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받겠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변질되어 마가의 내면에 가득 차게 되었다.

2. 선교 현장에서 실패와 갈등

(1) 바울과 바나바와의 관계 속의 자존심 마가에게는 '바나바'라는 삼촌이 있었다. 성경에서는 '쌍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친척이나 조카를 의미한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회심 후 10년 동안 고향에 머물 때 그를 불러내어 안디옥교회에 소개한 훌륭한 인물이었다. 마가는 자신의 훌륭한 삼촌 바나바를 따라 1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선교현장에서 마가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당연히 삼촌인 바나바가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체구도 작고 외모도 평범해 보이는 바울이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선포하며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엘리트의식이 강했던 마가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바울이 대장노릇을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졌고, 이는 육체적인 피로와 사역의 재미 상실로 이어졌다. 결국 마가는 무책임하게 선교여행 중간에 사역을 떠러치우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2) 사역의 분열과 이후의 변화 이 사건은 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큰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 바나바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조카인 마가에 다시 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바울은 선교라는 중대한 과업 중에 무책임하게 돌아간 마가를 결코 데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두 사도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패했던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 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로마까지 동행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도 과거의 실패와 교만을 버리고 마가처럼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한다.

3) 인간관계의 갈등과 자기성찰의 부재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어느 순간 서로 맞지 않아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빈번하다. 대개는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기보다 쌍방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며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다. 잠언 26장 16절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고 말씀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타인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평개나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살펴야 한다. 만약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결국 주변을 모두 원수로 만들게 된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다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타인이 나를 꾸짖을 때, 그것이 설령 억울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언어야 할 영적 고통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억울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베드로전서 4:1)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애매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벧전2:19, 개혁한 글)”고 가르쳤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과거 사죄복지현장에서 만났던 한 전도사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신제적인 장에게 있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성적이 매우 급하고 욕하는 기질이 있었다. 청년시절에는 화를 참지 못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을 정도로 자기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그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아 크게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 그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전도사님,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인데 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복을 건져려 합니까? 전도사님이 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항변하면 오히려 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뉘우치고 사과했다. 당장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상황에만 따라 들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나쁜 기준들이 말 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5) 마가 요한의 틀을 비운 베드로의 틈사역 마가 요한 처음에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기준은 로마의 황제와 세상적인 성공이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배경, 믿음 좋은 어머니, 훌륭한 지도자인 삼촌 바나바 등을 의지하며 '나라는 자아에 갇혀 있었다. 선교현장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본인의 신앙이라기보다 부모와 삼촌의 덕을 본 것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그런 마가에 베드로라는 최고의 멘토를 붙여주셨다. 베드로는 마가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성みが 급하고 욕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마가에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지속적으로 틈사역을 하며 그의 동기를 바꾸주었다. “마가야, 나도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분이시다. 원수 같은 제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섬기셨던 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가의 교만한 틀을 깨뜨려 주었다. 거듭나지 않은 깊은 악성DNA, 창세기 3장의 뿌리 깊은 자아를 말씀으로 수술한 것이다. 근본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안에서 새는 마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말처럼, 장소를 옮기거나 사람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을 치유해야 한다.

6) 근본치유와 동기 점검 근본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가 입을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미래와 생계 걱정에 사로잡혀 전도와 선교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고 산다.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질문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식이나 돈, 나의 이익 때문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영적 문제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이기심 때문인가?” 만약 그 이유가 복음이 아니라면 과감히 말씀으로 바뀌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가 그 틀을 타서 울무를 썩우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응답을 모두 가로막는다. 과거 하슬산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는 “와장창, 충창, 와장창”이라는 표현을 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자아와 틀린 기준이 완전히 박살나고 거듭날 때, 비로소 마가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믿음과 두려움과 허리를 채웠던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온 삶을 완전히 수용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확실한 언약이 되고, 응답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의 마가처럼 머물지 않고, 완전히 거듭나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쓰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섬기는 교단과 전 세계 현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